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Title: “Genesis 32 – Abram inherits Canaan”

Scripture: Genesis 13:1-18

Date preached: August 9th 2026

Scripture: Genesis 13:1-18

1 Then Abram went up from Egypt, he and his wife and all that he had, and Lot with him, to the South. 2 Abram *was* very rich in livestock, in silver, and in gold. 3 And he went on his journey from the South as far as Bethel, to the place where his tent had been at the beginning, between Bethel and Ai, 4 to the place of the altar which he had made there at first. And there Abram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5 Lot also, who went with Abram, had flocks and herds and tents. 6 Now the land was not able to support them, that they might dwell together, for their possessions were so great that they could not dwell together. 7 And there was strife between the herdsmen of Abram's livestock and the herdsmen of Lot's livestock.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then dwelt in the land.

8 So Abram said to Lot, “Please let there be no strife between you and me, and between my herdsmen and your herdsmen; for we *are* brethren. 9 *Is* not the whole land before you? Please separate from me. If *you take* the left, then I will go to the right; or, if *you go* to the right, then I will go to the left.”

10 And Lot lifted his eyes and saw all the plain of Jordan, that it *was* well watered everywhere (before the LORD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like the garden of the LORD, like the land of Egypt as you go toward Zoar. 11 Then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plain of Jordan, and Lot journeyed east. And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12 Abram dwelt in the land of Canaan, and Lot dwelt in the cities of the plain and pitched *his* tent even as far as Sodom. 13 But the men of Sodom *were* exceedingly wicked and sinful against the LORD.

14 And the LORD said to Abram,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him: “Lift your eyes now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northward, southward, eastward, and westward; 15 for all the land which you see I give to you and your descendants forever. 16 And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 man could number the dust of the earth, *then* your descendants also could be numbered. 17 Arise, walk in the land through its length and its width, for I give it to you.”

18 Then Abram moved *his* tent, and went and dwelt by the terebinth trees of Mamre, which *are* in Hebron, and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툇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벰엘에 이르며 벰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찻던 곳에 이르니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5 아브람의 일행 툇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낙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툇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라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자라

8 아브람이 툇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 □ 나나 □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 □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 □ 우하고 네가 우하면 □ □ 좌하라

10 이에 툇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낙후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 그러므로 툇이 요단 온 지역을 □ □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자라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툇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 죄인이었더라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Review – Genesis 12:10-20

In today's study we are going to look at the story of Abram's return to the Land of Canaan and his separation from Lot. We will cover the entirety of chapter 13. But before we look at that let us review the main points from last week's sermon.

In last Sunday's sermon we looked at Abram's time in Egypt. As I'm sure you recall he had travelled down through the land of Canaan and settled in the Negev region in the south. Whilst there they experienced a severe famine. Sadly such events were quite common in the ancient world. Israel depends upon rainfall and if it is a particularly dry year it can cause serious problems. What was Abram to do? As the head of the clan he was responsible for their well-being. He had to consider the needs of Sarai, his wife, Lot, his nephew along with all the other members of their group. What he should have done was trust and rely upon God. He had been called to dwell in the land of Canaan. Since that was where God wanted him he should have had faith that God would protect and provide for him. Unfortunately Abram's faith at this time was still small. Instead of seeking God he decided to devise his own plan.

His plan was to take the entire group down to Egypt until the famine was over. The region around the Nile Delta due to the water from the Nile River was seldom subject to famines. It made logical sense therefore to go there and wait the famine out. So they packed up their tents and set off towards the border.

As they approach the border crossing Abram becomes worried. His worry stems from the fact that 65-year-old Sarai is a stunning beauty. He is worried that an Egyptian noble man might take a shine to her and kill him in order to get her. This was a fairly common practice, so perhaps Abram had cause for concern. Once again however he should have trusted God. The Lord had plans for the future that involved both of them. Abram urges Sarai to lie. If anyone asks who she is she is to say that she is his sister. In this way Abram hopes to avoid being killed. Sarai's beauty does not go unnoticed. The Egyptian court officials inform the Pharaoh who in turn brings Sarai into his house (harem). As I told you last time I think it highly unlikely that the two had sexual relations. When a new “wife” joined the harem there was a period of purification.

This often lasted for several months. Aside from this I believe that God protected Sarai and kept her from any sexual violations. Abram as her “brother” did very well out of the deal. Presumably the king paid him the bride price and treated him well.

God, however was most displeased with the situation. He intervened supernaturally and sent a plague that affected the Pharaoh and his household. As I said last time the bible does not state specifically what this plague was. Some believe it was a form of leprosy that affected the skin and made sexual intercourse impossible. Whatever the case the Pharaoh learns of the deception. He call Abram before him and demands to know why he lied. Abram's response is not recorded for us. I think he very wisely kept quiet. The king reunites Sarai and Abram and asks them “politely” to leave Egypt and not come back. This was where we ended last time.

Today we will look at what happened when Abram returned to the land of Canaan.

복습- 창세기 12:10-20

오늘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롯과 헤어지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3 장 전체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 전에 지난주 설교의 주요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집트에서 아브람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이동하다가 남쪽 네게브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뭄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에 의존했는데, 특히 가뭄이 든 해에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브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안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내 사래와 조카 롯 그리고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고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아브람의 믿음은 아직 미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브람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지나려고 계획했습니다. □□□□□□□□□□□□□□□□
 분에 가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기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였습니
 다. 그래서 그들은 짐을 싸서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지자 아브람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걱정은 65 세의 사래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집트 귀족이 그녀에게 반해 자신을 죽이고 그녀를 차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꽤 흔했기에 그의 걱정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위한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그는 그분을 신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사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누구냐고 물으면, 자신이 아브람의 누이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래의 아름다움은 눈에 띄었습니다. 이집트 궁정 관리들은 파라오에게 사래에 대해 알렸고, 그는 사래를 자신의 후궁(하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 "아내"가 궁에 들어오면 보통 정화 기간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화 기간 외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사리를 보호하시고 성적인 학대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빠"인 아브람은 이 거리에서 커다란 이득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신부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를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이 탐탁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재앙이 피부에 영향을 미쳐 성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나병이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파라오는 아브람의 속임수를 알게 됩니다. 그는 아브람을 불러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아브람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현명하게 침묵을 지켰을 것 같습니다. 왕은 사래와 아브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정중하게" 이집트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지 11:1-12**. 오늘은 아브람이 가난한 땅으로 돌아간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en Abram went up from Egypt, he and his wife and all that he had, and Lot with him, to the South.

Abram as we have seen was asked to leave Egypt by the Pharaoh. I'm sure given the circumstances that he was happy to leave. He had after all embarrassed himself and his family by his shameful deception.

But we should also not overlook the fact that going back to Canaan was all part of God's divine plan. He wanted Abram to settle in the land of Canaan. Their time spent in Egypt was in effect wasted time. This is because their detour south ended up with them being exactly where they started. God would have provided for all their needs in the land to which He had called them. But Abram thought that he knew best.

So upon their exit from Egypt the party travelled north and re-entered the promised land. This brought them into the southern part of the land of Canaan, the Negev Desert region.

The observant among you will note that Lot is mentioned here. Technically speaking he was not named as being among those who went down into Egypt. But this verse affirms that in fact he had been among the party that went down and stayed in Egypt. This makes logical sense. The severe famine meant that all of them sought refuge in the land of the Pharaohs.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은 파라오의 명령으로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아브람은 기꺼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속임수로 자신과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은 사실상 시간 낭비였습니다. ■■■■■■■■ ■■■■ ■■■■ ■■ ■■ ■■■■ ■
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땅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을텐데, 아브람은 자
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후 일행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남쪽, 네게브 사막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롯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중에 롯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그가 이집트로 갔던 일행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기근 때문에 그들 모두 파리의 땅으로 파난을 갔으므로 롯도 함께 간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2 Abram *was* very rich in livestock, in silver, and in gold. 3 And he went on his journey from the South as far as Bethel, to the place where his tent had been at the beginning, between Bethel and Ai, 4 to the place of the altar which he had made there at first. And there Abram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I mentioned a moment ago that Abram's time in Egypt had been “wasted time.” However if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amassing material gain it was not wasted time. Abram had become very rich. In the original Hebrew the word used here for “rich” is the word *kabed* (kaw-ade). It actually means “heavy.” The idea being conveyed to us is that he was weighed down with his riches.

We often forget the burden comes with wealth. Rich people are not always the happy joy-filled people we might expect. As the popular saying goes, money can't buy you happiness. Most of us are so eager to acquire riches that we forget the weight it carries.

The burden comes from having to maintain or preferably increase what we have, having to use our riches wisely or sensibly and endeavouring to prevent others from taking what we have. How much easier it is in life without these concerns.

Now I am not suggesting that it is in any way desirable to live in poverty, but rather that it is often beneficial for us not to be overburdened by material possessions or wealth.

Abram was rich we are told in three specific areas. He had accumulated a large quantity of livestock. As we know much of this was acquired in Egypt, gifted to him by the Pharaoh. He had also amassed a large quantity of silver and gold. So we can see that Abram had already begun to be materially blessed which was a part of the Abrahamic Covenant.

From the Negev region in the south Abram travelled up as far as Bethel. This you will remember was where he had originally pitched his tent and made camp (Gen 12:8). This area was better able to provide for the needs of their flocks. It was also where he had previously made an altar and worshipped God. He returned to this spot we are told because he desired once again to hear from God. It's interesting that he returns to hear from God only when his own plan had backfired terribly. At times, we too are guilty of this. We make a poor choice or decision in life and when it goes horribly wrong we shuffle back to the Lord and ask Him to help sort out our mess.

We see here in Abram's actions two important "returns." The first is a geographical return. Abram returns to the physical place where he had encountered the Lord. The second and much more

important return is a spiritual one. Abram came back to the place in which he had begun his act of public worship of Yahweh. In doing so he renewed his commitment to the Lord following his failure in Egypt. It may also have been the case that he also wanted to express his gratitude for God's grace and mercy. Although things had not gone well in Egypt he had escaped unscathed, his wife and nephew were still with him and he had been materially blessed. There were numerous reasons to thank and praise the lord.

It is sad reality that in our battle against the flesh we will from time to time fall into sin. What is of vital importance is how we react to that fall. We would do well to follow Abram's lead. When we sin against God we should humbly return to Him repent, confess and worship. We do not need to travel to any particular place in order to do this. Wherever we are at the time will suffice. When we repent and confess our fellowship with God is restored and we can move on. Abram experienced this same kind of peace.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벳엘에 이르며 벳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찼던 곳에 이르니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이 "시간 낭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 부를 쌓고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문 히브리어에서 "부자"를 뜻하는 단어는 '카베드 kabad'인데, 이는 "무거운 heavy"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아브람이 부의 무게에 짓눌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에는 짐이 함께 따라 온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얻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부가 지닌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부자의 짐은 가진 것을 지키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책임감, 부를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걱정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가난한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질적인 소유나 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람은 세 가지 면에서 부유했습니다. 그는 많은 가축을 모았습니다. 이 가축의 상당 부분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또한 은과 금도 많이 모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람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의 일부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 □□□□ □□□□ □□□□□□. 이곳은 그가 처음 장막을 치고 지냈던 곳입니다(창세기 12:8). 이 지역은 가축 떼를 돌보기에 적합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에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브람이 자신의 계획이 차츰하게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종종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삶에서 잘못된 선 □□□□, 그 결과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 돌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아브람의 행동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원 returns"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구원입니다. 아브람은 주님을 만났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둘째이자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아브람은 여호와께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집트에서의 실패 이후 주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무사히 □□□□, 아내와 조카도 함께 있었으며,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싸우는 과정에서 때때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아브람의 본보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고백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한 장소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충분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람도 이와 같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5 Lot also, who went with Abram, had flocks and herds and tents.

We've spoken before about just how wealthy Abram was. He was the Elon Musk of the ancient world. He was a rich man when he left Canaan to enter Egypt and whilst he was there he managed to increase his wealth. Here we learn here for the first time that his nephew Lot was also a well off individual. Although he was probably not as rich as Abram he too had been blessed under the Abrahamic Covenant. He received this blessing because of his connection to his uncle. We are told that he had flocks of possibly sheep and goats, and herds of cattle. It also tells us that he had tents. As a nomadic people group everyone lived in tents. So obviously there were tents for Lot and his immediate family. Moses highlight "tents" here in particular because it indicates that he had numerous workers, slaves or servants that travelled with him. All of these people had to be accommodated in tents. It's just a way of emphasising Lot's wealth. These abundant material riches, particularly the four legged kind were about to cause them some serious issues.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우리는 아브람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고대 세계의 일론 머스크와 같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갈 때 이미 부유했었는데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재물을 더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브람의 조카 롯 또한 부유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비록 아브람만큼 부유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 언약 아래 축복을 받았습다. 그는 삼촌과의 인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롯이 양과 소 떼를 소유했고 또한 장막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목민이었던 당시 사람들은 모두 장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장막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는 롯과 많은 일꾼, 하인들이 함께 여행했으며, 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장막이 필요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롯의 재산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풍요, 특히 가축들이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6 Now the land was not able to support them, that they might dwell together, for their possessions were so great that they could not dwell together. 7 And there was strife between the herdsmen of Abram's livestock and the herdsmen of Lot's livestock.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then dwelt in the land.

Allow me to paint a picture of what life was like for an ancient nomadic tribal group. The land of Canaan was as we have previously established not an uninhabited place. The land was owned and controlled by various tribes, nations or small independent city states. These groups had control over various parcels of land. They quite naturally used this land for their own purposes and opposed, violently if necessary anyone trying to use their land for pasture. This meant that nomadic travelling groups could only settle and graze land that was unoccupied, undefended or unclaimed. We might term such land as "neutral land." In most cases we are talking about real estate that was poor pasture land. This situation might be worsened further depending on the time of year and how dry it had been.

Prior to their sojourn in Egypt living and grazing their animals together had not been an issue. But now with their increase in livestock they had a serious problem. Clearly they could not stay in the same place. Things really come to a head when the respective herdsmen of both families begin to fight.

You certainly don't want to be fighting among yourselves when you are surrounded by hostile enemies including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The term "Canaanite" whilst referring to a specific tribal group was commonly employed to refer to any inhabitant of the land of Canaan. The Perizzites were a particular people group. The name Perizzites means "villagers" and denoted those who lived out in the open country, rather than in larger, walled cities. The Perizzites dwelt in the region south and south-west of Mount Carmel. This was the fertile central portion of Canaan.

Given that they were surrounded by enemies it made little sense for Abram and Lot to be fighting each other. It only made them weaker and more vulnerable. Something decisive had to be done. Abram was faced with yet another test. He did not do very well with last two tests he faced. How would he fare here?

Let's read on and find out.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낯익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자라

고대 유목민 부족의 삶이 어땠을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여러 부족, 민족, 또는 작은 독립 도시 국가들이 소유하고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땅을 이용했고, 필요하다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신들의 땅을 목초지로 사용하려는 자들을 막았습니다. 이는 유목민들이 사람이 살지 않거나, 방어되지 않거나, 소유권이 없는 땅에서만 가축을 방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땅을 "중립지(neutral land)"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땅은 목초지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계절 또는 가뭄의 정도에 따라 상황은 더욱 나빴습니다.

이집트로 가기 전에는 아브람과 롯이 가축을 함께 기르고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축 수가 많아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집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면서 □□□□ □□□□ .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같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Canaanite"이라는 용어는 특정 부족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특정한 민족 집단이었고, 그 이름은 "마을 사람들villagers"을 의미하며,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도시가 아닌 탁 트인 들판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갈멜 산 □□□□□□□□ , 즉 가나안 땅의 비옥한 중앙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런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싸우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더욱 악하고 공격당하기 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람이 직면한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두 번의 시험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읽어보고 알아보시다.

8 So Abram said to Lot, “Please let there be no strife between you and me, and between my herdsmen and your herdsmen; for we *are* brethren. 9 Is not the whole land before you? Please separate from me. If *you take* the left, then I will go to the right; or, if *you go* to the right, then I will go to the left.”

Abram I am pleased to say handled this test in a much better way. He goes to Lot and outlines not only the problem but also offers a solution. It is clear to both men that the place in which they are currently residing cannot support them both. It is only leading to strife and conflict between their respective herdsmen. This is proving damaging to them both and to their Godly witness in that area. There should as Abram rightly notes be no fighting between “brothers.” So Abram proposes that they separate. They will go in opposite directions and find their own places to live. It is an eminently sensible solution.

Look at the reasonable and measured way that Abram introduces the subject. We are surrounded by good land he tells Lot.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be arguing and fighting over the same piece of real estate. I also want you to note very carefully what Abram does next. It tells us a great deal about Abram's wisdom. He effectively gives Lot the choice about where to go and settle. You can either take what's on the left or on the right. They will in effect divide the land between them.

Now clearly Abram is a kind and generous uncle. He definitely has a soft spot for his nephew. But in the culture of that day he was the elder or the senior figure. The choice really rested upon him. Abram by rights was the one who could decide where to go. Lot as the lower person in the social hierarchy would just have to be content with what he was given. And yet here he subverts the

custom and allows Lot the choice.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9 나나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10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11 우하고 네가 우하면 12 좌하라

다행히도 아브람은 이 시험에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롯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두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곳은 두 집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해로울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들의 신앙적 증거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브람 말대로 "친족brethren" □□□□□□ □□□□. 그래서 아브람은 두 사람이 헤어져서 제안을 합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정착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아브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롯에게 주변에 좋은 땅이 많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땅이 많은데 같은 땅을 두고 다투면서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의 다음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는 아브람의 자혜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롯에게 어느 땅으로 가서 살지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롯은 왼쪽 땅이든 오른쪽 땅이든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나눠 갖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람은 친절하고 관대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조카를 매우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연장자인 아브람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어느 땅으로 갈지 결정할 선택권을 가졌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롯은 그저 그에게 주어진 땅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관습을 깨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10 And Lot lifted his eyes and saw all the plain of Jordan, that it *was* well watered everywhere (before the LORD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like the garden of the LORD, like the land of Egypt as you go toward Zoar. 11 Then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plain of Jordan, and Lot journeyed east. And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It is easy for us to imagine this scene. Some speculate whether the two men were standing on Mount Asor as they looked out over the plain of Jordan. At just over 1000 meters in height it is the tallest peak in this region. It is also only a short walk from both Bethel and Ai.

So when Abram offered Lot what was on his left, he was referring to northern Canaan, including the area around Shechem going as far south as Bethel and Ai. The other choice was what was on their right. This meant southern Canaan, including Hebron and the Negev. Both men we should note had previously lived in both regions. This means they had a good knowledge of what each had to offer.

As Lots survey the land he notes that it was well watered. Access to good water sources was essential in that dry region. We also read the ominous detail that this was prior to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As you are probably aware the area where archaeologists think these cities were once located is a desolate place today. A barren dry rocky region home only to scorpions and lizards. But it was not always this way. It was once a highly desirable location. Moses describes it here as being like the "garden of the Lord." This means it was at this time in history similar to the Garden of Eden. It is also compared favourably with Egypt. The reference here is to the Nile delta. A green and well-watered place.

Lot is enamoured with the plain of Jordan and chooses this place in which to settle. Later this will turn out to have been a very poor choice. Abram decides to head east and the family parts ways.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리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12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라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사람이 아소르 산 Mount Asor 에서 요르단 평야를 내려다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높이가 1,000 미터가 넘는 아소르 산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벰엘과 아이에

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한 왼쪽 땅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베엘과 아이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선택지인 오른쪽 땅은 헤브론과 네게브 사막을 포함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이 두 지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 둘 다 각각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롯은 둘러보면서 물이 풍부한 땅을 알아차립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넉넉한 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일이 소돔과 고모리가 멸망하기 전의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곳은 오늘날에는 아주 황량합니다. 전갈과 도마뱀들만 사는 황량하고 건조한 바위투성이 지역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때는 매우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을 "여호와와 동산"과 같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그곳이 에덴동산과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집트 땅과도 비유하는데, □□□□□□□□ 푸르고 물이 풍부했음을 의미합니다.

롯은 요단 평야가 마음에 들었고 그곳에서 살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는 매우 잘못된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롯은 동쪽으로 옮겨가고 두 가족은 마침내 헤어지게 됩니다.

12 Abram dwelt in the land of Canaan, and Lot dwelt in the cities of the plain and pitched his tent even as far as Sodom. 13 But the men of Sodom were exceedingly wicked and sinful against the LORD.

Following the split both families settled into their respective areas. Abram lived in the land of Canaan. This means that he continued to live surrounded by his enemies. As before they would have had to find neutral land upon which to graze their flocks.

Lot by contrast headed south-east. The precise location of the ancient city of Sodom is disputed today.

I think there is good evidence to suggest that it was once located just south-east of the Dead Sea in the Jordan valley. As we have just established this was once a good place in which to keep animals. There was plenty for the herds to graze upon and the area at that time had good sources of water. However it was in the vicinity of the city of Sodom. Moses tells us that they were an exceedingly wicked and sinful people.

The Hebrew used here literally means they were "VERY sinners" against Yahweh. It's worth us remembering that fact. When we sin we often think that we are wronging another human being. If I steal some money from your wallet then it's you I am sinning against.

Of course in this scenario we are committing an injustice against this person. We are harming them in stealing money from them. However when we sin ultimately we are sinning against a Holy God. When we sin we are breaking God's laws and in doing so offending Him.

As we progress on with our journey through the Book of Genesis I will speak much more on the wicked depravity of the men of Sodom. Their sins included participating in homosexuality and rape, among others.

Before moving on it's worth us reflecting for a moment on Lot's choice. In some ways he chose a very desirable location. It provided for all his and his families needs. But it was a choice that also came with a great spiritual danger. The grass may have been green and the water fresh and clear, but it was located right next to a sewer pipe. The filthy corruption of Sodom was just a short distance away. It's impossible to stand near a sewer pipe and not occasionally get a putrid odour wafting your way.

Let us read on.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께 죄인이었다라

두 가족은 헤어진 후 각자 다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살아야 했고, 이전처럼 가축을 방목할 중립지를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반대로 롯은 남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고대 도시 소돔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소돔이 한때 사해 남동쪽 요르단 계곡에 있었다는 주장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가축들이 풀을 뜯을 곳이 많았고, 당시에는 물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소돔 근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극도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그들이 여호와께 "께 께께 VERY sinners"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다면, 제가 죄를 짓는 대상은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훔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설교를 진행하면서 소돔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 중에는 동성애와 강간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롯의 선택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매우 바람직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그와 그의 가족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큰 영적인 위험도 따랐습니다. 푸른 목초지와 맑은 물이 있었지만, 그곳은 바로 하수관 옆에 있었습니다. 더럽고 타락한 소돔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수관 근처에 있으면 악취가 풍겨오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14 And the LORD said to Abram,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him: “Lift your eyes now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northward, southward, eastward, and westward; 15 for all the land which you see I give to you and your descendants forever. 16 And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 man could number the dust of the earth, *then* your descendants also could be numbered. 17 Arise, walk in the land through its length and its width, for I give it to you.”

We move now into what is in effect a restatement of the Abrahamic Covenant. This was the third time Abram received direct revelation from God. God spoke to him on this occasion following his separation from Lot. There is an interesting parallel here with what happened to Lot. Lot also “looked out and took in the land.” When he did it so it was on his own initiative. He surveyed the land with self-interest at heart. He looked for a piece of land that would profit and benefit only him and his people. Abram looked out only when God encouraged him to do so. God sought not only to bless Abram but all those generations that flowed from him.

God encourages Abram to take it all in. Spin around and look at it all. All that he can see is going to be the inheritance of his descendants (God's chosen people) forever. This remember is an unconditional covenant. God's people will inherit this land. No if, but or maybes.

God continues to reaffirm His promises to Abram and expands on them. Not only will the Lord give Abram children and make of his offspring a great nation, God will make them so numerous as to be uncountable. Such a promise must have been both comforting and confusing to a childless man in his mid 70s. To help convey things better God employs a potent analogy. He tells Abram that his

descendants will become as numerous as the “dust of the earth.” Why dust you might ask. Well at times we describe huge numbers or quantities as being like sand on the beach. Now, individual particles of sand, grains can in theory at least be counted. Feel free to go to the nearest beach with a magnifying glass and start counting. But how do we count dust.

The very ideas of trying to count dust is simply mind-boggling. Here is the take-away. From both a physical and spiritual perspective, Abraham's children will exceed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to comprehend (Romans 9:7-9, Galatians 3:7).

God then tells Abram that he is to embark on a walking tour. He is to go on the very first Holy Land excursion. Today if you visit Israel you can elect to join a tour guide and be shown many of the major biblical or archaeological sites. It's well worth doing. Abram was not really going on a sightseeing trip. As he walked around he was asserting his God given right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Even though the reality was that his descendants would not fully occupy or possess the land for many years to come. We might think of this process as being the equivalent of “measuring the land.” In ancient times, taking the measure of something was a sign of ownership. It was also common for victorious armies to claim conquered territory by marching through it and literally treading it under their feet. It would further help cement in Abram's mind just how generous God had been. All of this amazing land was His gift to His people.

Let'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by looking at the following verse.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사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세 번째였습니다. 아브람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롯에게 일어난 일과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땅을 보았고, 자신과 자기 식구에게만 이득이 될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땅을 보라고 권고하셨을 때에 비로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의 모든 땅을 둘러 보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보이는 모든 땅이 그의 후손(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예외도, 불확실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을 재차 확인하시고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자손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실 것입니다. 70 대 중반의 지식 없는 남자에게 주신 이 약속은 위로가 되면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람의 자손이 "땅의 티끌 dust of the earth"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티끌이냐고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수를 해변의 모래에 비유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래알을 하나 하나씩 세는 것은 가능합니다. 돋보기를 들고 가까운 해변에 가서 세어 보세요. 하지만 티끌 dust 을 어떻게 셀 수 있었습니까? 티끌은 셀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로마서 9:7-9, 갈라디아서 3: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 땅을 걸어서 다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최초의 성지 순례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가이드와 함께 주요 성경 유적지나 고고학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데, 매우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순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을 거닐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

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땅을 측량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무언가를 측량하는 것이 소유권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승리한 군대가 정복한 땅을 행진하고 밟고 돌아 다니면서 소유권을 과시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땅을 그분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아브람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 Then Abram moved *his* tent, and went and dwelt by the terebinth trees of Mamre, which are in Hebron, and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The episode ends by telling us that Abram moved his tent. This reminds us that he continued living a nomadic lifestyle. Despite being promised actual ownership of the land Abram preferred to move around and dwell under canvas. On this occasion he travelled to the terebinth or oak trees of Mamre. The area was named after its original owner, Mamre the Amorite. Just as we saw when we looked at the trees near Shechem (Gen 12:6) this was probably a prominent site for pagan worship. It will be from here that Abram will later plead for the sparing of Sodom (Gen 18:1).

Moses also gives us the detail that these trees are in Hebron. This indicates that Abram stayed outside but near the city, just as he did at Shechem. The verse closes by again telling us that in this location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is means that in a place of wicked pagan idolatry Abram constructed a place of worship to the one true God.

He had walked around which was an act of physical possession. In constructing an altar he was also taking spiritual possession of the land.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Lot's kidnap and the daring rescue attempt made by Abram.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나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이야기는 아브람이 장막을 옮긴 일로 끝났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유목 생활을 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땅의 실제 소유권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장막 치는 삶을 선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주인인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세겜의 나무들(창세기 12:6)처럼 이곳에서도 또한 이교도 숭배가 성행했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나중에 바로 이곳에서 소돔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창세기 18:1).

모세는 이 나무들이 헤브론에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아브람이 세겜에서처럼 도시 근처의 외곽에 머물렀음을 시사합니다. 이 구절은 아브람이 다시 한번 이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언급하며 끝났습니다. 이는 악한 이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아브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이 그 지역을 걸어 돌아 다녔다는 것은 실제로 땅을 소유했음을 의미합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그 땅의 영적인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롯의 납치와 아브람의 용감한 구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study.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Living for others and not ourselves

How easy it is to be selfish and self-centred. That is our default setting as human beings. We want what's best for us and never mind the rest. I recently watched a Korean TV drama about an elementary school. One of the student's mothers was very demanding of the teacher. She basically wanted her son to be given every conceivable advantage. She was at one point challenged by the

teacher about her attitude. She was asked whether she had any concern or care for the other children in the class. If her son was treated in a preferential or privileged manner it was unfair. Shouldn't everyone be equally treated. The mother angrily screamed back at the teacher that she couldn't care less about the other students. She was only interested in her own son.

While he was in Egypt Abram was selfish and self-centred.

He was only worried about what was good for him. But he seems to have learned a valuable lesson from this experience.

When he came back to the Land of Canaan things were different. Take for example his treatment of Lot. By rights as the elder man he could have exerted his right to choose the best land. Instead, he allowed Lot to choose first. He willingly forfeited his own right to put Lot first.

It is hard for us at times to put the needs of others above our own. Our own wants and desires demand our attention. We must therefore struggle against our flesh and recognise the need to think of others before ourselves.

William Booth founded the Salvation Army in 1878. Every year the organisation held an annual conference. Booth would always attend and give a speech. In his latter years however he became too ill to attend in person. Instead, he would telegram them a message to read out on his behalf. One year the message contained just one single word. That word was OTHERS.

I'm sure William Booth was thinking of Philippians chapter 2 verse 3.

Let nothing be done through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lowliness of mind let each esteem others better than himself.

Let us take this verse to heart. And endeavour to live for others and not ourselves.

1.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최선이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한 학생의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매우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만 가능한 모든 특혜를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의 태도를 문제 삼아 따졌고, 그녀의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만 특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며, 모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화를 내며 다른 학생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 좋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롯을 대했던 아브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연장자로서 그는 당연히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아브람은 가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욕구와 소망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싸워야 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윌리엄 부스는 1878년에 구세군을 창립했습니다. 구세군은 매년 연례 회의를 개최했고, 부스는 항상 참석하여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건강이 약화되어 직접 참석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전보를 보내 자신의 메시지를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해, 그 전보에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 OTHERS"이었습니다.

저는 율리엄 부스가 빌립보서 2 장 3 절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 □□ 여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도록 노력합니다.

2 Conflict resolution

Genesis chapter 13 opens with Abram and his nephew Lot returning from Egypt. Both men had done well from the experience. They had been blessed materially and now had an abundance of livestock. However as we saw things were not all good. Their prosperity creates tension as the land cannot support all of their livestock. As a result of this strife breaks out between their herdsmen. Abram responds to the situation by making a very generous proposal.

Abrams action here teaches us some very important lessons about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I'm sure we have all seen or been involved in difficult situations. So lets look and learn from Abram. I have drawn four lessons from his engagement with Lot.

Lesson 1 – He acts first. Abram recognises that there is a problem brewing. Instead of waiting and just hoping things get better he took the initiative and acted first. When we find ourselves in situations of conflict let us be the ones to act first and try and resolve things.

Lesson 2 – He values relationship over rights. Having good and peaceful relations with his nephew Lot are more important to Abram than asserting his rights as elder to the prime grazing land. Let us learn that the relationships we have with people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being right or getting what we feel entitled to.

Lesson 3 – He yields choice. He might have insisted upon getting his way but Abram is man enough to let Lot pick first. In their situation there was lots of land to choose. So why destroy a family arguing over small details. Sometimes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to give up choice in order to achieve peace.

Lesson 4 – He keeps the solution simple and practical. So often we try to complicate things when in fact a simple solution is best. In Abram and Lot's case the solution was very simple. Separate the flocks by living in different locations. The result will be the preservation of family unity. Often the answer to a problem is simple.

There are many things we can learn from Abram. Let us seek to be peace-makers and conflict resolvers both in our own lives and with those with whom we interact.

2 갈등 해결

창세기 13 장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이집트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은 긴장을 초래했는데, 모든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아브람은 관대한 제안으로 그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아브람의 행동은 갈등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을 목격했거나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람의 사례를 통해 배워봅시다. 저는 아브람과 롯의 대화에서 네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훈 1 – 그는 먼저 행동했습니다. 아브람은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 그저 기다리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대신 먼저 나서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교훈 2 – 권리보다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아브람은 연장자로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 조카 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우리도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

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훈 3 – 그는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 부릴 수도 있었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땅이 많았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가족을 파탄낼 필요가 있을까요? 때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교훈 4 – 그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해결책이 최선일 때에도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경우 해결책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서로 헤어져서 가족 떼를 떼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종종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브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지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